

2002년 시멘트 수급 전망

최 민 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국내 경제 및 건설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 3/4분기 경제동향」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0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든 이래 2001년에 들어서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00년에는 8.8%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 1/4분기에는 3.7%, 2/4분기에는 2.7%에 이어 3/4분기에는 1.8%로 성장률이 더 낮아졌다. 더구나 최근 미국 테러사태로 인하여 국내의 투자 및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01년의 경제성장률은 2%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2000년에는 4.1%가 감소하였으나,

〈표-1〉 경제성장률 및 건설투자 증감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00	2000(p)			
		1/4	2/4	3/4	1/4~3/4
국내 총생산 (GDP)	8.8	3.7	2.7	1.8	2.7
건설투자	-4.1	1.4	0.9	8.3	3.7

주: 1995년 가격 기준 (원계열) 자료: 한국은행

2001년에 들어서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2001년 1~9월중 3.7%가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상가·학교 등 건물건설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소폭 증가에 머물고 있다.〈표-1〉)

한편,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의 예측에 의하면, 경기회복 시점이 2002년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제성장률은 3~4%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안정한 경제 환경하에서 기업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투자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실업률 상승 등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민간의 소비심리도 조만간 회복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표-2〉)

2. 2001년 시멘트 수급 동향

2001년 1~10월의 시멘트 소비량은 4,032만톤 (수입소비량 포함)으로서 전년동기대비 3.2%가 증

〈표-2〉 주요 기관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2000년	2001년(p)	2002년(e)					
			KDI	한국은행	삼성	LG	한경연	IMF
경제성장률(%)	8.8	2.0	3.2~5	3~5	3~5	2.9~4.4	4.4	4.5

자료: 재정경제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2001.9.28, 삼성경제연구소, 「2002년 경제전망」, 2001.10.5, 최윤기(2001.11) 재인용

〈표-3〉 시멘트 수급실적 추이

		생 산	국내소비	수 출		재 고	
				내 수	수 입		
실적(천톤)	1997	59,796	61,751	58,772	2,979	623	1,224
	1998	46,091	44,615	44,437	178	1,239	1,630
	1999	48,157	44,721	44,586	135	3,661	1,469
	2000	51,255	48,000	47,482	518	3,946	1,297
	2001.1~10	42,196	40,315	39,511	804	2,584	1,397
전년비(%)	1998	22.9	-27.8	-24.4	-94.0	98.9	33.2
	1999	4.5	0.2	0.3	-24.2	195.5	-9.9
	2000	6.4	7.3	6.5	283.7	7.8	-11.7
	2001.1~10	1.0	3.2	2.1	122.1	-20.4	7.1

자료: 한국양회공업협회

가하였다. 2001년 상반기 중에는 동절기의 혹한과 폭설 등으로 수요가 크게 감소한데다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3/4분기 이후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 9월의 경우에는 522만톤(수입소비 포함)을 소비하여 전년동월에 비해 47.7%가 증가하기도 하였다.(〈표-3〉, 〈그림-1〉)

2001년 하반기 들어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착공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 임대 수요를 겨냥한 주거용 건축물과 상가·소형업무시설 등 근린생활 시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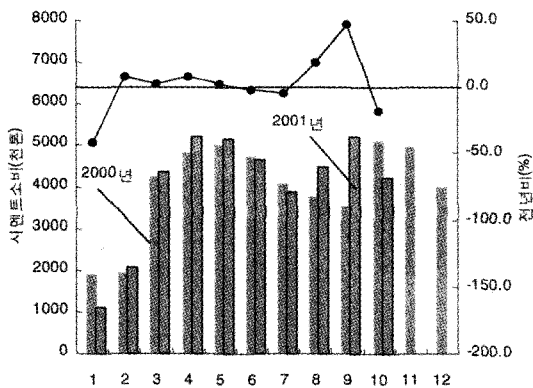
신축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01년 하반기 이후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주가 상반기 중에 착공을 강행함으로써 일시적인 시멘트 수요 증가를 유발하였다.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상반기 중에 착공된 다가구 주택은 총 8만4,055가구로서 전년동기에 비해 2.5배가 증가하였으며, 다세대 주택은 상반기 중에 7만2,653가구로서 전년도 연간 실적을 28%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중소형 건축에서 수요가 지속될 경우, 2001년의 시멘트 수요는 2000년보다 4% 가량 증가한 5,000만톤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멘트 산업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시멘트업계에서는 수요 침체에 대응하여 반제품인 크링카(Clinker)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2001년 10월까지의 수출실적은 258만톤으로서 전년대비 20.4%가 감소한 상태이다. 이는 주요 수출지역인 동남아시아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멘트의 수요 증가율은 레미콘보다 4% 포인트 가량 낮은데, 이는 레미콘 업체들이 시멘트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하여 플라이애쉬(Fly Ash)나



〈그림-1〉 월별 시멘트 소비 추이

〈표-4〉 2002년 국내 건설공사 계약액 전망

(단위:백억원, %)

토 목	2000		2001(e)		2002년(e)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상반기	전년비	하반기	전년비	
토 목	2,243	7.8	2,293	2.3	2,395	4.4	1,098	6.2	1,297	3.0
주 거 용	2,249	16.4	1,785	-20.6	1,786	0.1	931	-6.4	855	8.2
비주거용	1,524	38.3	1,681	10.3	1,651	-1.7	681	-11.5	971	6.5
계	6,015	17.6	5,759	-4.3	5,833	1.3	2,710	-3.2	3,123	5.5

주:일반 건설업체의 건설계약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임(경상가격).

자료:최윤기 외, 2002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10.

고로슬래그(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등 혼화재료의 사용량을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2002년 시멘트 수급 전망

가. 건설공사 수주액 전망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01년 1~9월의 국내 건설공사 계약액은 42조8,0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동기대비 76.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15조8,539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은 26조9,538억원으로서 전년동기보다 2.4% 감소하였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건설자재 수요 예측에 있어 선행지표로 사용되는 만큼, 2001년의 건설공사 계약액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은 2002년의 시멘트 수요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2년의 건설경기 전망 결과를 보면, 당초 건설공사 계약액은 그동안 큰폭의 감소세를 보여왔던 민간 주거용 건축수주가 2001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설수주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2년의 건설공사계약액 전망치를 보면, 58조3,300억원을 수주하여 전년대비 1.3%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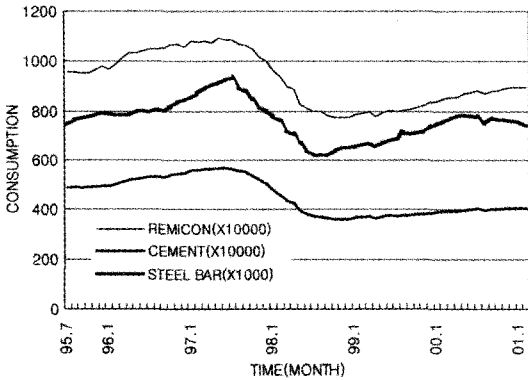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3.2%가 감소하나,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5.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주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분의 건설수주는 2002년 상반기까지 다소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민간부분의 건설수주는 부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4〉)

나. 시멘트소비의 추세 분석

12개월 이동평균법(Ratio-to-Moving Average Method)을 통하여 시멘트 소비량의 추세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이후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나, 성장 추세는 L자형으로서 완만한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2000년 중반 이후로는 다시 회복세가 주춤한 상태로서, 2001년 현재 단기 조정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2〉).

다. 외생적(外生的) 요인 분석

2002년의 시멘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등 세금감면 조치가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주택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시멘트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림-2〉 건자재 소비의 12개월 이동평균(moving average)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1년 상반기에는 대형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착공 물량이 9만 가구에 머물렀으나 하반기에는 18만 가구가 착공될 전망이며, 중소건설업체와 대한주택공사의 물량을 포함할 때 총 25만 가구가 착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2001년 4/4분기 이후 민간부분의 시멘트 수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2002년에 시행되는 월드컵 경기, 대선, 지자체 선거 등을 앞두고 시설 개·보수공사와 지역공약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며, 정부의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로 인하여 학교의 신·증축과 보수공사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단, 다세대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한 소형주택 건설은 2001년에는 이상적(異常的)으로 크게 활성화되었으나, 2002년에는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2년의 시멘트 수요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수요 환경을 살펴볼 때, 시멘트 수요는 2001년 3/4분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어 2002년도에도 수요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나, 수요 증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외생적 측면에서 볼 때, 주택 등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요인이 많으나, 소비자측에서 구매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급속히 회복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시멘트 수요도 상당기간 조정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라. 2002년 시멘트 수급 전망

2002년의 시멘트 수요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와의 시차분포(Distributed Time Lag) 현상을 고려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수요치를 추정한 후, 수요의 계절성, 정책적 외생요인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수요예상량을 산출하였다. 수요 유발변수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건설공사 계약액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수요 예측 결과에 의하면, 2002년의 시멘트 수요 증가율은 2.1% 수준에 머물러 5,107만톤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7년 대비 82.7% 수준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수요 회복이 매우 지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5〉)

2002년의 시멘트 수요가 소폭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2001년에 단기적으로 이상(異常)수요를 유발했던 다세대 주택 등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 건설이 2002년에는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스틸하우스, 가변형 벽체의 적용 확대, 철골조 건축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시멘트의 수요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 중에는 수요 증가율이 상

〈표-5〉 2002년 시멘트의 내수 소비량 전망

년도	구분	소비량(천톤)	
		소비량	전년비(%)
1997년		61,725	-
1998년		44,615	-27.8
1999년		44,721	0.2
2000년		48,000	7.3
2001년(e)		50,020	4.2
2002년(e)		51,070	2.1

주:수입 소비량을 포함한 것임.

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하반기에는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마. 중기(中期) 전망

중기적으로 보면, 시멘트 수요는 향후 3~5년 후에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발표된 판교 신도시 건설과 서울시 4대 저밀도지구 재건축 등이 가시화 될 경우, 시멘트 수요 증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국 7대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7.8%에 달하는 1억평을 해제할 것으로 발표하였는 바, 2002년부터는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도시 인근의 해제지역을 중심으

로 주택 개량사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시멘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2001년 9월 개최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을 조기에 추진키로 합의하였는 바,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육로관광도로 등의 건설사업이 가시화 될 경우, 북한 특수(特需)로 인한 수요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03년 이후 용적율 등 건축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상당부분 규제를 받을 전망이며, 비주택 부문의 건설경기도 침체가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1990년대와 같은 급격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 용어 해설

▶ 케언스그룹, NTC 그룹

케언스그룹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농산물수출국 그룹을 통칭한다. 1986년 호주 케언스에서 결성돼 이런 이름을 얻었다. 회원국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이다. 거의 정부 보조없이 수출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형태의 농산물교역 자유화를 주장하는 등 미국과도 다른 입장이다. NTC(Non-Trade Concerns: 비교역적 관심사항) 그룹은 농산물수입국 중심의 그룹이다. 케언스그룹의 강력한 수출 확대 정책에 맞서고 있으며 농산물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과 문화적 배경, 정책적 고려사항들이 감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NTC란 원래 어디서나 저렴하고 풍부하거나, 또는 교역시 운반서비스 비용이 수입국에서의 상품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통칭한다. 최근에는 농산품이 NTC 대상이나를 놓고 이해관계국간 논쟁이 치열하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최대 관심사가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이들 국가간 공방이다. 케언스그룹은 글로벌 무역체제에서 농업에 대한 국내 보조금을 실질적이고 대폭적으로 감축하라며 농업개혁을 촉구하는 반면 NTC 그룹은 환경보호와 농촌유지를 위해 농업 보조금 철폐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입국인데다 특히 쌀값에 농산품이 대거 수입될 경우 농가 파탄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NTC 그룹을 지지하고 있다.